

● DAY 20 · 2 부 여기까지 온 길

왜 이제는 쓸 수 있는 AI 가 이렇게 많을까 — 모두의 모델 경쟁

하루 5 분 , AI 이야기 · 2026 년 9 월 26 일



만드는 곳이 몇 군데에서 수십 곳으로 늘자 , AI 는 ' 쓰는 것 ' 에서 ' 고르는 것 ' 이 됐어 .

한 줄로 말하면

1

2022 년 말엔 제대로 쓸 만한 대화형 AI 가 **손에 꼽을 정도**였어 . 지금은 미국 · 유럽 · 중국 · 한국까지 수십 곳이 저마다 모델을 내놓아 .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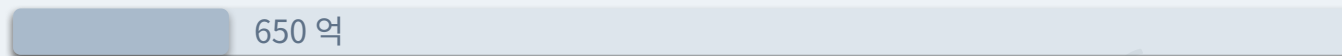
가장 크게 바뀐 건 **열린 모델**이 생긴 거야 . 모델의 숫자 문치를 통째로 풀어 줘서 , 누구나 내려받아 자기 장비에서 돌릴 수 있게 됐거든 .

3

그래서 지금은 **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는** 시대야 . 값 , 속도 ,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, 한 곳이 새 기능을 내면 몇 달 안에 비슷한 게 여기저기서 나와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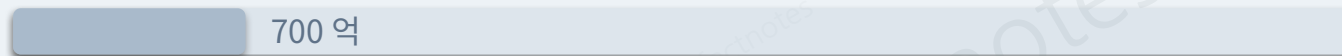
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모델의 크기

라마 1 · 2023 년 2 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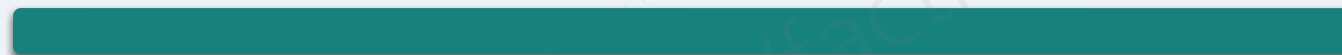
650 억

라마 2 · 2023 년 7 월



700 억

라마 3.1 · 2024 년 7 월



4,050 억

1 년 반 만에 여섯 배가 됐어 . 2020 년 GPT-3 가 1,750 억이었으니 , 그보다 큰 모델을 누구나 받게 된 거야 .

핵심 : 큰 모델은 문이 닫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깨졌다

2022 년과 지금 , 무엇이 달라졌나

만드는 곳

전

쓸 만한 대화형 모델을 내놓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 . 이름을 다 대는 데 한 손이면 충분했지 .

후

미국 , 유럽 ,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 연구팀이 자기 모델을 내놔 . 몇 달마다 새 이름이 튀어나와 .

한 곳이 새 기능을 내면 몇 달 안에 비슷한 게 나와 . 쫓기는 쪽이 생기니까 값은 내려가...

열린 모델

전

모델 속 숫자 뭉치는 아무도 안 봤어 . 밖에서 말을 걸어 답만 받아 볼 수 있었지 .

후

숫자 뭉치를 통째로 푸는 흐름이 2023 년에 생겼어 . 내려받아 내 장비에서 돌리고 고쳐 쓸 수 있게 된 거...

2020 년 GPT-3 가 1,750 억이었던 걸 떠올려 봐 . 이제 그보다 큰 모델을 누구나...

고르는 쪽

전

선택이랄 게 없었어 . 쓸 수 있는 게 사실상 하나였으니 비교할 대상도 없었지 .

후

값이 싼 것 , 빠른 것 , 수학을 잘하는 것 ,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따로 있어 . 일에 맞춰 골라 써 .

고르는 힘이 쓰는 쪽으로 넘어왔어 . 다만 어느 걸 믿을지 판단하는 몫도 같이 넘어왔지 .

항목을 고르고 「2022 년 말」 과 「지금」 을 번갈아 눌러 봐 . 숫자보다 ' 고를 수 있느냐 ' 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이야 .

학습 .html 에서 직접 만져 볼 수 있어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

2022 년 말과 지금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?

- ① 쓰는 값이 크게 올랐다
- ② 모델이 하나로 합쳐졌다
- ③ 이제 아무도 안 만든다
- ④ 모델을 만드는 곳이 훨씬 많아졌다

Q2

' 열린 모델 ' 이 뜻하는 건 ?

- ① 누구나 숫자 문치를 받아 직접 돌릴 수 있는 모델
- ② 광고가 없는 모델
- ③ 언제나 정답만 주는 모델
- ④ 인터넷 없이 검색되는 모델

Q3

만드는 곳이 늘면 쓰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은 ?

- ① 답이 사라진다
- ② 골라 쓸 수 있다
- ③ 전기가 끊긴다
- ④ 글자가 커진다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④

손에 꼽을 정도였던 곳이 수십 곳으로 늘었어. 쫓고 쫓기니까 값은 내려가고 성능은 올라갔지.

Q2

①

모델 속 숫자 뭉치를 통째로 푸는 방식이야. 내려받아 자기 장비에서 돌리고 고쳐 쓸 수 있어.

Q3

②

값 · 속도 · 잘하는 분야가 다 달라서 일에 맞춰 고르게 돼. 대신 무엇을 믿을지 판단하는 몫도 같이 생겨.

**만드는 곳이 몇 군데에서 수십 곳으로 늘자,
AI는 '쓰는 것'에서 '고르는 것'이 됐어.**



내일은 요약 — 2 부에서 걸어온 길을 한 장으로 되짚어 보자.